

“독립영화의 여름”... 광주에서 ‘폴짝 뽀짝’

15회 광주독립영화제...25일부터 광주극장·독립영화관

독립영화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광주의 여름 극장가를 물들인다. 광주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제15회 광주독립영화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 GIF T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는 ‘폴짝 뽀짝 Indie Go!’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다음 단계로 힘차게 도약한다는 뜻의 ‘폴짝’과 서로 가까이 붙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의 ‘뽀짝’을 결합해 지역영화인들의 연대와 발랄한 에너지를 담았다.

개막작 ‘특근’ ‘세상은 그렇게 끝난다.’ 등 장단편 33편 상영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단편 ‘특근’과 ‘세상은 그렇게 끝난다.’를 비롯해 국내외 장·단편 33편이 관객과 만난다.

상영 프로그램은 ▲지역 창작자들의 지력을 보여주는 ‘메이드 인 광주’ 1·2와 ‘넥스트10’ ▲로컬 신예 연출가들의 데뷔작을 모은 ‘광주 신진 감독전’ ▲광주 출신 배우이자 감독인 위은경의 창작 세계를 조명하는 ‘위은경 배우전’ 등으로 구성됐다.

5·18민주화운동을 동시대적 연대의 감각으로 확장하는 ‘오월이야기’ 1·2도 마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기획된 ‘지역교류전: 전남’도 올해 영화제의 주요 색선 중 하나다.

해외 장편 상영작으로는 ‘미스 부츠’와 ‘The Harsh Journey’가 소개된다. 두 작품은 각각 퀘벡 내셔널데이와 해외초청 색선을 통해 관객을 찾는다.

영화제의 시작을 여는 개막식은 25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개막작은 단편 ‘특근’과 ‘세상은 그렇게 끝난다.’다.

‘특근’은 개막식이 열리는 광주극장에서 전 분량이 촬영된 작품이다. 관객들은 영화의 배경이 된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극장과 영화가 겹쳐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세상은 그렇게 끝난다.’는 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포착한 다큐멘터리다. 기록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감독에 대한 연대와 지지, 그 기록을 향한 응원의 의미를 담아 스크린에 오른다.

공간의 운기를 품은 극영화 ‘특근’과 시대의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다큐멘터리 ‘세상은 그렇게 끝난다.’는 서로 다른 결로 올해 영화제의 문을 연다.

폐막작으로는 다큐멘터리 ‘졸업앨범: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선정됐다. 작품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날, 부당권력에 맞서 계엄철제 시위를 벌였던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폐막식과 폐막작 상영은 28일 오후 4시 광주독립영화관 GIF T에서 진행된다.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를 끝으로 영화제는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상영 후에는 감독과 제작진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다수 이어진다. 부대행사로는 고릴라펀드 후원의 ‘시나리오 피칭’이 25일 영화의 집에서 열리며, 27일에는 지역 영화인들이 교류하는 ‘영화인의 밤’이 마련



된다. 28일에는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지역영화 네트워크 간담회’가 진행된다.

광주독립영화제 관계자는 “올해 슬로건 ‘폴짝 뽀짝 Indie Go!’처럼 관객의 감각과 마음을 깨우는 생기 넘치는 작품들을 한가득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찾아 독립영화에 전하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광주독립영화제는 관객 편의를 위해 작품별로 국·영문 및 중문 자막을 제공한다. 개막작을 제외한 일반 상영작은 광주독립영화관 GIF T 홈페이지 또는 예매 플랫폼 ‘무비에’ (moviee.co.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개막작 ‘특근’과 ‘세상은 그렇게 끝난다.’, 해외초청색선 ‘The Harsh Journey’는 무료 상영이며, 그의 상영작 관람료는 5천원이다. /최명진 기자

Indie Go!



제40회 정기연주회 ‘청춘’에서 광주시향과 호흡을 맞추는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왼쪽)와 지휘자 데이비드 이.

반세기 광주시향, 젊은 감각으로 잇는 ‘청춘’

오는 17일 광주예당 대극장서

헤리티지 시리즈Ⅵ 정기연주회

반세기의 유산과 젊은 음악가들의 감각이 어우러지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0회 정기연주회 ‘청춘’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50년 역사를 이어온 광주시향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헤리티지 시리즈’ 여섯 번째 무대다. 지휘자 데이비드 이,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와 함께 세대를 잇는 에너지와 음악적 깊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외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 데이비드 이는 브람스가 품었던 청춘의 열정과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삶의 회한을 하나의 흐

름으로 풀어내며 작품의 서사를 이끌 예정이다.

공연 전반부에서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된다. 청춘의 생동감과 독주 악기의 힘 있는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와 광주시향의 호흡을 만날 수 있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마지막 걸작으로 꼽히는 ‘교향적 무곡’을 선보인다. 광주시향의 풍부한 앙상블과 함께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화려한 색채와 역동적인 리듬을 담아낼 예정이다.

협연자로 나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는 세계적 권위의 콩쿠르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온 연주자다.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음색을 바탕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통해 기교와 음악적 진정성을 함께 전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고정된 질서 너머, ‘이형’의 상상력을 만나다

7일까지 ‘ACC 뉴스트’ 임수범·하승완 2인전

지역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7일까지 전시 7관에서 ‘ACC 뉴스트(NEWST)’ 두 번째 전시로 ‘이형의 뼈(A aberrant Bones)’를 선보인다.

ACC는 지역 작가 공모전 ‘2026 ACC 뉴스트(NEWST)’를 통해 총 4팀(5인)을 선정해 3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 7관은 지역에서 평면 회화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ACC가 새롭게 조성한 공간이다.

지난 3월 이정직 작가의 ‘반역된 가상’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에게 전시 기획과 연출의 전권을 부여하는 ‘작가 주도형’ 방식으로 마련됐다.

규격화된 전시 공간인 화이트 큐브(White Cube)의 틀에서 벗어나 작가의 예술적 세계관이 공간 전체에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임수범 작가는 기이한 형태의 ‘뼈’를 통해 현



임수범작 ‘정통의 땅-연결된 세계’

실에 고착된 질서에 질문을 던진다. 동서양 신화 속 존재들이 뒤섞인 유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전시장에 경계 없는 초월적 공간을 펼쳐낸다.

하승완 작가는 신화적 전설과 현대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혼종’의 이미지에 주목한다. 고전 속 인물과 인공지능(AI) 로봇, 곤충 형상 등을 결합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동창적인 조형 세계를 선보인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